

베트남전쟁과 한국사회 제1회 심포지움 “정신의학자가 본 전쟁의 상처”

- 주최 :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www.peacemuseum.or.kr)
- 후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일시 : 2005년 10월 7일 금요일
- 장소 :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월남참전 용사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연구 토론회 자료

김성전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

1. 전쟁터에서 경험하는 정신적 고통

- 가) 투입전의 불안감
- 나) 소리에서 오는 공포
- 다) 동료의 죽음이나 부상으로부터의 공포
- 라) 죽이는 연습
- 마) 전투 중 상대를 죽임
- 바) 전투 후 비참한 시신을 보면서 발생하는 두려움
- 사)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고민
- 아) 전투를 끝내고 난 뒤의 고통

2. 미국의 연구: 이라크 전쟁 중에 미군병사들이 정신적 이상 증세로부터 나타나는 고통에 대한 연구(2004년 7월 1일자 AFP통신에서 인용)

- 가) 2004년 7월 1일자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린 것
- 나) 미육군 월터 리드 육군 연구재단의 찰스 호그의 주도로 연구된 논문
- 다) 6,000명이상의 미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검사
- 라) 4개의 보병부대가 조사대상
 - 3개의 육군 부대와 1개의 해병부대가 조사대상
 -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 파병된 82공정사단과 3보병사단이 포함
- 마) 이라크로 파병되기 전에 검사 실시하고 3~4개월 후에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으로 진출된 병사들을 대상으로 조사
- 바) 부상병사나 비행으로 인해 기소처분 받은 병사들은 제외
- 사) 결과
 - 파병 전에 9.3%였던 것이 11.2~17.1%까지 증가됨
 - 증상: 우울증, 불안이나 고민, 스트레스성 심신기능의 부조화 정신질환
 - 원인: 전투에 참가한다는 자체, 시신처리, 누군가 죽었다는 것, 적 전투원을 죽였다는 사실, PTSD의 발병률
 - 상관관계: 경험한 전투의 횟수가 많을수록 높음

3. 전사 속의 정신 이상 증세

가) 패튼장군이 병사 우지의 뺨 구타

나) 1차 세계대전 중 영국군 등 많은 국가는 두려움에 몸을 떠는 병사들을 처형

다) 2차 세계대전 중 소련의 주코프장군은 두려움에 전선에서 이탈하는 병사들을 즉결 처형

4. 미국은 PTSD 증상을 줄이기 위해 파병되기 전에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전쟁에서 돌아와서 증상이 나타나면 국가가 즉각적으로 도움을 줌

(전쟁 중에도 계속 검사, 연구하여 미래를 위해 준비)

5.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고엽제 문제에만 치중되어 왔음. 이제부터도 한국도 연구를 하고 대비해야 함. 오늘 이 토론은 국방부가 먼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 안타까움

6. 이라크 전과 아프카니스탄 전에 참전한 용사들의 증상을 분석해 본 결과 이라크에 파병된 병사들의 발병률이 높음(18%대 11%)

- 전투지역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에 따라 달라짐
- 게릴라전과 테러전이 주는 영향이 큼
 - 안전지대가 없다.
 - 안전한 임무가 없다.

7. 영향을 주는 요소

- 아는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죽었다는 사실
- 자군병사가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경우
- 시신을 다루거나 노출된 시신을 보는 경우

8. 전쟁 전, 전쟁 중, 전쟁 후의 환경이 중요

- 월남전에 참전한 한국군병사들은 60%가 국졸이하(20%는 무학), 30%는 중졸, 10%정도가 고졸 이상이었다고 참전 용사들이 전함
- 전쟁 후 사회적인 관심이 전혀 없었음

9.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체계적인 연구와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
- 현재의 군문화가 발전해야 하는 이유

미국의 월남참전용사들에 대한 심층 연구(NVVRs) 결과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etnam Veterans' Readjustment Study)**

PTSD를 위한 연방 본부 (A National Center for PTSD) 자료
제니퍼 L 프라이스 박사(Jennifer L. Price, Ph.D.)

개요

- PTSD와 다른 전쟁 후 나타나는 월남참전용사들의 심리적인 문제 조사를 위한 법이 1983년 의회에서 통과된 후 연구
- NVVRs의 연구목적은 참전용사들 돌보기 위한 전쟁 후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문제로 인한 정확한 발병률을 알기 위함
- NVVRs는 다양한 방법의 평가방법(multimethod assessment approach)을 사용했음 (예를 들어 자기 보고서, 또는 정신과의사의 면담)

NVVRs의 주요 결과

- 100가지 이상의 유형이 나타남
- 대부분의 참전용사들은 잘 적응했지만 소수는 그렇지 못했고, 그중의 일부는 커다란 도움이 필요함

심리적 외상[정신적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 PTSD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평가했는데 여기에는 3개의 주 연구기관(the Mississippi Combat-Related PTSD Scale,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PTSD Scale, and the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II-R PTSD module)과 7개의 보조연구기관이 참여함.
- 월남전 참전군인들 중 15.2%의 남성과 8.5%의 여성이 항시 PTSD 증상을 보임.
- 이러한 결과는 월남전 시기의 다른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이나 일반인들에 비해 남자들의 경우 35.8% 그리고 여자들은 17.5%가 높은 수치임
- NVVRs는 약 830,000명의 월남 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26%가 PTSD 증

상이나 이와 부분적 기능장애 현상을 보임

		PTSD		Partial PTSD	
		Current	Lifetime	Current	Lifetime
Vietnam Theater Veterans	Male	15.2	30.9	11.1	22.5
	Female	8.5	26.9	7.8	21.2

NVVRS의 자료를 2003년도에 재분석해본 결과 최초의 분석과는 다르게 많은 수의 참전용사들이 20~25년 후에 면담을 했을 때 4~5가지의 새로 보고된 증상을 포함하여 만성 PTSD 증상으로 고생하는 것을 발견

월남 참전용사들이 보이는 심리적 질환은 무엇인가?

- 월남참전용사들은 PTSD 이외의 심리적 질환을 앓고 있음

남녀간에 나타나는 증상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 우울증, 불안증세, 알콜 문제(depression, anxiety, and alcohol problems)는 집단 간 차이가 남 (see Table 2).

		Most-Prevalent Current Disorders	Most-Prevalent Lifetime Disorders
월남전 참전용사	남성	과음(Alcohol Abuse) 알콜중독(Alcohol Dependence) 불안증세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과음(Alcohol Abuse) 알콜중독(Alcohol Dependence) 불안증세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바사회적 증상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여성	우울증(Depression) 불안증세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불안증세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우울증(Depression) 과음(Alcohol Abuse) 알콜중독(Alcohol Dependence)

이러한 증상은 일반인들에 비해 월남 참전용사들에게는 보편적인 현상인데 최초의 조사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음.

특히 치열한 전투에 더 많이 참전했던 용사들에게서 매우 높게 나타남

월남 참전용사들에게 나타나는 다른 증상

직업적 불안정(occupational instability), 부부생활장애(marital conflicts), 그리고 가정 문제(family problems). 특히 폭력을 포함하여 부부문제, 가장으로서의 문제 또는 다른 가정적 조정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나타남

참전용사들에게 나타나는 위험요소는?

- 격렬한 전쟁에 노출되면 될수록 증상이 심해짐.
- 게다가 인종과 민족에 의한 차이가 나타남. 아프리카 출신 흑인과 히스페닉계통에게 심하게 나타남.
- 그러나 2000년에 Ruef, Litz, 와 Schlenger가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몇 개의 변수가 발견됨. 민족적인 문제는 주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제시됨
- 전쟁 전의 환경과 전쟁 중의 스트레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짐
- 전쟁 중의 열악한 환경이 증상에 많은 영향을 줌. 특히 악행이나 잔학행위가 있는 경우 증상이 심해짐
- 전쟁에 투입되기 이전의 가정환경, 교육환경, 성장환경 등도 영향을 줌
- 전후의 사회적 지원 등도 영향을 줌. 특히 PTSD로의 진행과 관련이 많음
- 따라서 전쟁 전, 전쟁 중, 전쟁 후의 환경이 중요
- 결론적으로 전후에 체계적으로 사회적인 지원이 있어야 함

Schnurr, Lunney, 와 Sengupta가 2004년에 인종적인 문제와 위험요소에 대한 연구 (see Table 3).

Table 3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PTSD in Vietnam Veterans		
	Risk Factors for PTSD Development	Risk Factors for PTSD Maintenance
Premilitary Factors	Hispanic ethnicity Family instability	Severe punishment during childhood

	Severe punishment during childhood Childhood antisocial behavior Depression	
Military Factors	War-zone exposure Peritraumatic dissociation* Depression	Serious injury during Vietnam War-zone exposure Peritraumatic dissociation*
Postmilitary Factors	Recent stressful life events Post-Vietnam trauma Depression	Recent stressful life events

*Peritraumatic dissociation is immediate dissociation at the time of the traumatic event.

Schnurr, Lunney, 와 Sengupta가 2004년도에 연구한 방어적 요소에 대한 추가결과
(see Table 4).

Table 4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PTSD in Vietnam Veterans		
	Protective Factors for PTSD Development	Protective Factors for PTSD Maintenance
Premilitary Factors	Japanese-American ethnicity High school degree or college education Older age at entry to war Higher socioeconomic status More positive paternal relationship	Native Hawaiian or Japanese-American ethnicity College education
Military Factors	None	None
Postmilitary Factors	Social support at homecoming Current social support	Current social support

결론

전쟁 전, 전쟁 중, 전쟁 후의 환경이 PTSD에 얼마나 중요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게 됨. 중요한 것은 ‘참전용사들이 얼마나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었는가’이며, 사회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임